듣는 강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주님 세례 축일

# 세례, 새로운 삶, 새로운 내딛음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물은 생명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은 형태를 바꿔버립니다. 오랜 세월 물이 흐른 곳에는 길이 생기고 돌들은 닳아버립니다. 그리고 홍수나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물은 형태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물은 창조와 동시에 파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은 또한 세례성사에 있어서도 필수적 요소입니다.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동안의 모습을 죽이고 파괴시켜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시켜 줍니다.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에서 홍수는 인간의 죄로 물든 세상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파괴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한 쌍씩의 짐승들은 방주에 올랐습니다. 대홍수 상황에서 노아 가족과 짐승들이 생명을 유지할 유일한 수단은 방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비둘기를 보내시어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 바뀐 땅에 새롭게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땅이 새롭게 바뀌도록 하는 물, 바뀐 땅에 새롭게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둘기. 이 두 요소는 주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세례성사 때의 물은 땅을 새롭게 바꾸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삶도 바꾸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의 형태를 바꾸어 새롭게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할 것을 다짐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출렁이는 죄와 욕망의 바다를 떠다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물을 떠다니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물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삶의 형태를 해체하고 바꾸어 줄 새로운 물, 세례 때의 그 물이 늘 필요합니다. 그때의 물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새롭게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고해성사)할 때 그 물이 눈에서 흘러나와 우리를 거듭 씻어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교회의 성사 안에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도록 지금도 비둘기(성령)를 띄워주십니다.



지금 나는 어떤 물을 접하고 있습니까. 팍팍하고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나만의 방주를 만들어 웅크리고 주저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세례 때의 물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형태를 바꿉시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창조된 나의 삶에 다시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비둘기(성령)를 보내 주십사고 청합시다.

**김태호** 스테파노 **신부** | 명서동본당 보좌

## 주일 전례

| | |
|---|---|
| 제 1 독 서 | 이사 42,1–4.6–7 또는 40,1–5.9–11 |
| 화 답 송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 제 2 독 서 | 사도 10,34–38 또는 티토 2,11–14; 3,4–7 |
| 복 음 | 루카 3,15–16.21–22 |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홍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 성지의 기상氣象

배의순 요한 보스코 시인/ 가톨릭문인회

세상을 그저 그만하게 살았는데, 뭐가 그리 아쉬움이 남겠는가. 그러나 아니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 후, 5개월쯤 지났을까,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내자內子가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내적으로 한없이 당황하면서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결국 내자를 하늘나라에 보내는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다.

누구나 우울한 아침은 있다고 하던가. 홀아비로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한 발 떨어져 나 자신을 끊임 없이 돌아볼 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불안과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가올 일에 대해 단단히 정신적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헤아리지 말고,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을 헤아려 보라는 말이 있다. 내게 신앙이 바탕이 되어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이 순간 신앙생활로 인하여 잘 버틸 수 있었다. 나의 기도생활도 그렇다.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조금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내가 하는 기도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렇듯 끝없이 신에게 묻고 자신에게 묻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베네딕도 수도원 원장을 역임한 안젤름 그륀 신부는 “살아 있음에 감사하라, 하루가 즐겁고 새롭다. 그리움이 있는 곳에 진정한 삶이 있다. 따라서 당신은 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진정으로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수원교구 미리내실버타운이다. 미리내성지 들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 쌍룡산이 고즈넉이 둘러싸고 있어, 가슴에 내면의 울림이 스스로 느껴지는 최고의 성지가 아닌가. 나는 매일 한 시간쯤 산책을 한다. 산책하다 보면 계절마다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게 된다. 산책을 한다는 것은 언어 논리적 체계가 아닌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거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기도 한다. 인간의 깊은 감정은 대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처럼 다시 나를 몇 번이고 돌아보게 된 것이다.

끝으로 필자가 평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본다. 첫째, 내게는 번듯한 스펙이라고는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리라. 남 앞에 내세울 만한 때깔 좋은 무엇이 없다는 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매일 출근 도장을 찍듯 하면서, 책을 읽었다. 되돌아보면, 치욕적인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다면, 오직 하느님의 은총이라 단정하고 싶다. 둘째, 내자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곳에서 1년을 넘게 살았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상도에서 미리내로 옮겨, 새 둥지를 제대로 튼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되찾고, 다시 수술자국이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듯, 감히 성지에서 받은 기상을 굳게 믿고 싶다. 참으로 신에게 감사하며 두 손을 모은다.

# 2022 교구 사제 정기인사

| 사제명 | 부임지 | 전임지 |
|---|---|---|
| 배진구 | 원로사목자 | 명서동 주임 |
| 이승홍 | 원로사목자 겸<br>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
| 정흥식 | 남성동 주임 | 금 산 주임 |
| 허철수 | 북신동 주임 | 가좌동 주임 |
| 조명래 | 원로사목자 | 덕산동 주임 |
| 차광호 | 용 원 주임 | 교포사목(독일 베를린) |
| 이학율 | 영성생활의 집–신설 | 안 식 년 |
| 진선진 | 상남동 주임 겸<br>학원담당 교구장대리 | 반송 주임 겸<br>학원담당 교구장대리 |
| 남경철 | 금 산 주임 | 남성동 주임 |
| 구성진 | 명서동 주임 | 거 창 주임 |
| 유해욱 | 휴 양 | 명 례 성 지 |
| 황병석 | 남 지 주임 | 대방동 주임 |
| 남영철 | 삼 계 주임 | 휴 양 |
| 백남해 | 대방동 주임 | 진 교 주임 |
| 임효진 | 덕산동 주임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장 |
| 김종훈 | 반 송 주임 | 광주가톨릭대학교 |
| 박영진 | 함 양 주임 | 남 지 주임 |
| 황인균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장 |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장 |
| 이중기 | 교포사목(독일 베를린)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
| 주용민 | 안 식 년 | 평거동 주임 |
| 이정근 | 교구청 신축 담당 | 용원 주임 겸<br>교구청 신축 담당 |
| 최경식 | 국내이주사목 담당 | 안 식 년 |
| 이주형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 완월동 주임 |

| 사제명 | 부임지 | 전임지 |
|---|---|---|
| 전동혁 | 교포사목(미국 신시내티) | 안 식 년 |
| 고태경 | 진 교 주임 | 회원동 주임 |
| 이진수(스) | 거 창 주임 | 삼 계 주임 |
| 하춘수 | 회원동 주임 | 여좌동 주임 |
| 신호열 | 가좌동 주임 | 함 양 주임 |
| 이흥우 | 면 직 | 안 식 년 |
| 이성현 | 면 직 | 안 식 년 |
| 김종원 | 완월동 주임 | 국내이주사목 담당 |
| 최동환 | 평거동 주임 | 문 산 주임 |
| 박진우 | 장 등 주임–신설 | 북신동 주임 |
| 권기덕 | 어학연수(베트남) | 정 직 |
| 김호준 | 유학(벨기에 루뱅대학) | 어 학 연 수 |
| 최진우 | 명 례 성 지 | 상남동 주임 |
| 이슬기 | 여좌동 주임 | 군 종 |
| 서성민 | 문 산 주임 | 양덕동 보좌 |
| 이진수(프) | 양덕동 보좌 | 사파동 1보좌 |
| 김태호 | 현지사목(오스트리아 그라츠) | 명서동 보좌 |
| 이시몬 | 사파동 1보좌 | 반 송 1보좌 |
| 김유태 | 유학(로마) | 신안동 보좌 |
| 조우현 | 광주가톨릭대학교 | 유학(로마) |
| 허기원 | 반 송 1보좌 | 고 현 보좌 |
| 주경환 | 고 현 보좌 | 덕산동 보좌 |
| 정재덕 | 덕산동 보좌 | 교포사목<br>(미국 LA 성삼 보좌) |
| 서시몬 | 청소년국 차장–신설 | 사파동 2보좌 |
| 김동윤 | 교포사목(미국 LA 성삼 보좌) | 반 송 2보좌 |

●**인수인계일:** 1월 11일(화) 10:00, 11:00 ●**부임일:** 1월 14일(금)

## ■장등본당 신설

창원지구 진영본당에서 장등본당을 아래와 같이 분리 신설합니다.

- **본당명:** 장등본당 • **설립일:** 2022년 1월 3일
- **주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 **주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6번길 50
- **관할구역:**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전역,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진영리 일부, 여래리 일부
  (25번국도 동편과 진영리 1593–1에서 여래리 973번지 사이 14번 국도 북쪽 전체)
- **면적:** 2,839.67㎡(859평) • **주민수:** 28,967명 • **신자수:** 426세대 921명

## ■초임 주임 신부 본당파견과 신앙고백

대상: 이슬기 신부, 서성민 신부

일시: 1월 11일(화) 13:30 장소: 교구청 주교관 경당 직무교육: 14:00 총대리 집무실

## 새사제 인사발령

| 사제명 | 부임지 | 비 고 |
|---|---|---|
| 계강준 | 대방동 보좌 | 칠원본당 출신 |
| 김 현 | 신안동 보좌 | 반송본당 출신 |
| 임태근 | 명서동 보좌 | 호계본당 출신 |
| 정병진 | 사파동 2보좌 | 함안본당 출신 |
| 신승혁 | 반 송 2보좌 | 장평본당 출신 |
| 남하늘 | 월 영 보좌 | 대방동본당 출신 |



**계강준** 요한 **신부**

###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1,10)

찬미 예수님! 저는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된 칠원본당 계강준 사도 요한입니다. 먼저 제가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교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서품을 준비하며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신학교의 삶을 마치고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사제로서의 삶의 자리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의 마음에,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하혈하는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두렵지만 주님께 다가간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런 여인을 보듬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저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1,10)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길을 나서는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안드레아 **신부**

###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3-5)

찬미 예수님! 저는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은 김현 안드레아입니다.

먼저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교우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3-5)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있어 사제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기쁨과 희망 가득한 삶 안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새로 시작하는 지금, 항상 하느님께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고 하느님, 세상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희망의 전령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임태근** 모세 **신부**

###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

찬미 예수님,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된 호계본당의 임태근 모세입니다.

가장 먼저 부족한 제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교구장 주교님 그리고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선배 신부님들과 교구민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제의 삶을 준비하며 부족함과 두려움은 항상 저를 자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며, 당신께서 이끄실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의 모범을 통해 저의 삶을 새롭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걸려 넘어지고, 아파하고 때로는 눈이 멀었을 때에도 빛이신 주님께서는 저의 음성을 들으시어 저를 짊어지고 이끄셨습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노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저의 근심과 걱정은 가벼워졌고, 모든 순간이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 필요했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도 부족한 저라는 도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도구로써 하느님과 교회에 충실히 봉사하는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진 요셉 신부

###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필리 2,5)

찬미 예수님!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은 함안본당 정병진 요셉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사제직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사제 서품을 받기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교우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 사제가 되어 사제로서 한 걸음 내딛어 보려는 지금, 아직 부족한 저 자신을 스스로 잘 알기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 또한 듭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이 첫 마음을 간직하여, 앞으로도 모든 것은 나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서품 성구로 정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라는 말씀처럼,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 안에 간직하여 겸손한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사제로서 첫 발을 내딛는 저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혁 요한 신부

###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찬미 예수님!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은 장평본당 신승혁 세례자 요한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사제직으로 불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제 서품을 받기까지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교우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학교에서의 양성과정을 마치고 사제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설렘과 기대보다는 저의 부족함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저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신 하느님을 기억하며 항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루카 복음의 성모님께서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 받으셨을 때,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하느님 뜻에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하늘 엘리지오 신부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마태 6,10)

찬미 예수님.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된 대방동본당 남하늘 엘리지오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교구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이렇게 글로써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학생으로 살아갈 때도, 서품을 준비하면서 하느님께 항상 의탁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도우심과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서품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면서도 늘 하느님께 의탁하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교구장 동정

**초임 주임 신부 파견예식**

일시: 1월 11일(화) 13:30
장소: 교구청 주교관 경당

## 교구/본당

**배진구 베드로 신부 퇴임미사**

일시: 1월 9일(주일) 10:30
장소: 명서동성당

**신학생 동계연수**

일시: 1월 10일(월)~11일(화)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인수인계**

일시: 1월 11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새 임지 부임**

일시: 1월 14일(금)

**전국 사회사목국장 회의(화상회의)**

일시: 1월 13일(목) 10:30

**전국 청소년국장 회의(화상회의)**

일시: 1월 14일(금) 10:30

## 위원회/기관/단체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기 타

**가톨릭ON(생활성서사 온라인 클래스)**

내용: 김혜윤 수녀(성경 본문 줌인 구세사-1,2편),
김영선 수녀(지혜여정: 역사서),
김효준 신부(바이블가이드: 성경입문가이드), 박형순 신부(지혜여정 이사야, 다니엘, 요나서)
▶pc와 모바일로 자유롭게 수강가능, 수시접수
문의: 010·3092·1108, 02·945·3300,
www.catholicon.co.kr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1월 31일(월) 마감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202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2월 9일(수)까지(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원서접수: 1월 11일(화)~2월 9일(수)
대상: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이주배경 청소년
모집인원: 20명/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1·432·9241(전남 강진군)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기간: 22년 3월~12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7.5%

**2022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전진상교육관 02·726·0700/ 0701
www.jjscen.or.kr 게시판 참고

**청도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내용: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원하시는 신자(암 또는 아토피 환자)가 머물러 갈 수 있습니다.
기간: 1개월~12개월
지도: 문봉한 신부
문의: 054·373·3955, 010·2573·6204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 시 | 장 소 | 문 의 | 비 고 |
|---|---|---|---|---|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 1월 15일(토) 14:00 | 서울 개화동 수도원 |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


BARUN 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업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 : 010-5055-0076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서울성지순례 2박 3일 25만원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 장평본당 제15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태한(가밀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남주희(유스티노)
총무분과위원장: 반현식(스테파노)
재경분과위원장: 최영식(바오로)
홍보분과위원장: 옥영백(펠릭스)
선교분과위원장: 박홍(그레고리오)
전례분과위원장: 최정아(요안나)
청소년분과위원장: 송명식(야고보)
시설분과위원장: 최금용(루카)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류이도(마지아)
구역분과위원장: 소순연(안젤라)
감사: 최창근(요한)

### 금산본당 제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최용조(요아킴)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성인기(베드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이혜숙(안나)
총무·홍보분과위원장: 전양수(미카엘)
재경분과위원장: 하원수(다니엘)
차장: 주환웅(펠릭스)
전례분과위원장: 이기성(레오)
교육·복음화분과위원장: 김상호(요셉)
차장: 주지용(요셉)
시설분과위원장: 천상용(요한)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정윤(비비안나)
차장: 조정아(마리아)
구역분과위원장: 유희정(아녜스)
차장: 김옥주(글라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주영길(요셉)
차장: 조영숙(사비나)
가정분과위원장: 이은주(글로리아)
차장: 최달연(세실리아)

## 교구 사제 집전 가톨릭평화방송 TV 미사 안내

가톨릭평화방송에서는 부득이하게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 매일 미사를 방송합니다.
교구 사제들의 미사가 다음과 같이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1월 9일(주일) 주님 세례 축일 – 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 집전**
▶**1월 16일(주일) 연중 제2주일 – 이청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기획관리국장) 집전**
▶**방송 시간: 06:00, 09:00, 12:00, 18:00, 21:05**

## 로뎀의집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상담원(사회복지사) 1명
접수: 1월 18일(화) 18:00까지, 전자우편 (rothem03@hanmail.net) 및 방문 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로뎀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문의: 055·292·4747
▶구체적 사항은 로뎀의집 홈페이지(www.rothem03.or.kr),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채용정보 참조

##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십시오.
"교구 법원은 신자들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6611·0631**



신간소개

### 말없이 온몸으로 사랑을 드러낸 요셉 성인에 관한 묵상과 기도

# 아버지 성 요셉

이 책은 요셉 성인에 관한 글 모음집이며,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은 요셉 성인에 관한 30가지 묵상으로 「아파하는 나에게」 저자 에피코코 신부의 통찰이 돋보이는 감동적인 묵상 모음이다. 요셉 성인의 주변 인물들을 소재로 흥미롭게 엮어진 '요셉 성인께 드리는 9일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부분은 성 요셉의 해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고요하고 충실하게 일상을 살았던 요셉 성인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문헌이다. 셋째 부분은 요셉 성인께 드리는 편지로 「성모님과 함께하는 31일 기도」의 저자 안토니오 벨로 주교가 섬세한 필치로 쓴 묵상편지 형식이며 요셉 성인의 고귀한 인품을 거울삼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소명을 마주하도록 격려한다. 마지막 부분은 요셉 성인께 드리는 기도 모음으로 요셉 성인에 관한 묵상들이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기도문들이다.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 옮긴이: 성염

# 광야에서 만난 하느님(탈출 15,22-17,16)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서른두 번째 순례 여정의 출발지는 갈대 바다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를 지나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잠시 머물렀다가 신 광야를 거쳐 르피딤에 이릅니다. 그곳을 떠나 이집트를 떠난 지 두 달 만에 드디어 시나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그 산자락에서 약 1년간 체류한 후 다시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서른두 번째 여행은 약 두 달간 지속되는 꽤 긴 여정입니다. 그것도 거친 광야를 지나는 여정이기에 앞으로 겪게 될 시련에 대비하여 각오를 단단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풍광은 굉장히 낯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들판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가시덤불들만이 간간이 보일 뿐 거친 황토로 뒤덮인 광야는 한없이 메말라 보이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길을 차를 타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물과 음식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간 양식과 물이 떨어지면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시련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지닌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느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는 가져간 물도 다 떨어지고,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마라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을 감당할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은 단물로 변화되었고, 백성들은 갈증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엘림에서는 야자나무 일흔 그루가 자라는 큰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가져간 양식도 모두 떨어지고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 여정이 그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따름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르피딤에서는 바위에서 솟는 물로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두 달간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의 결핍으로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불평과 그들을 보살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불신과는 대조적으로 하느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한편 그들이 르피딤에서 쉬고 있을 때 그들은 아말렉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으며, 무사히 시나이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결핍과 안전의 위협을 체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매 순간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자만과 불신으로 얼룩진 우리의 민낯을 직면하게 되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짓 위안들의 정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은 거짓 위안이 아니라 참된 위안이신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온갖 시련과 어려움은 없애야 할 걸림돌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위한 디딤돌인지도 모릅니다.

